

국정화 끝내 강행... 국회 '올스톱'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중·고교 2017년부터 적용
野, 의사일정 전면거부·효력정지 신청... 교육감·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3일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강행하면서 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휘국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을 비롯한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가 이번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면서 "역사교육을 정상화,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도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날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위원회를 구성,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집필 작업은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진행되며 내년 12월 검수와 현장 적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가 적용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부터 국회 로테нда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국정화 철회를 압박했지만 확정고시가 나자 곧바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

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 최고위원-교과서특위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 일정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물론 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으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새정치연합은 4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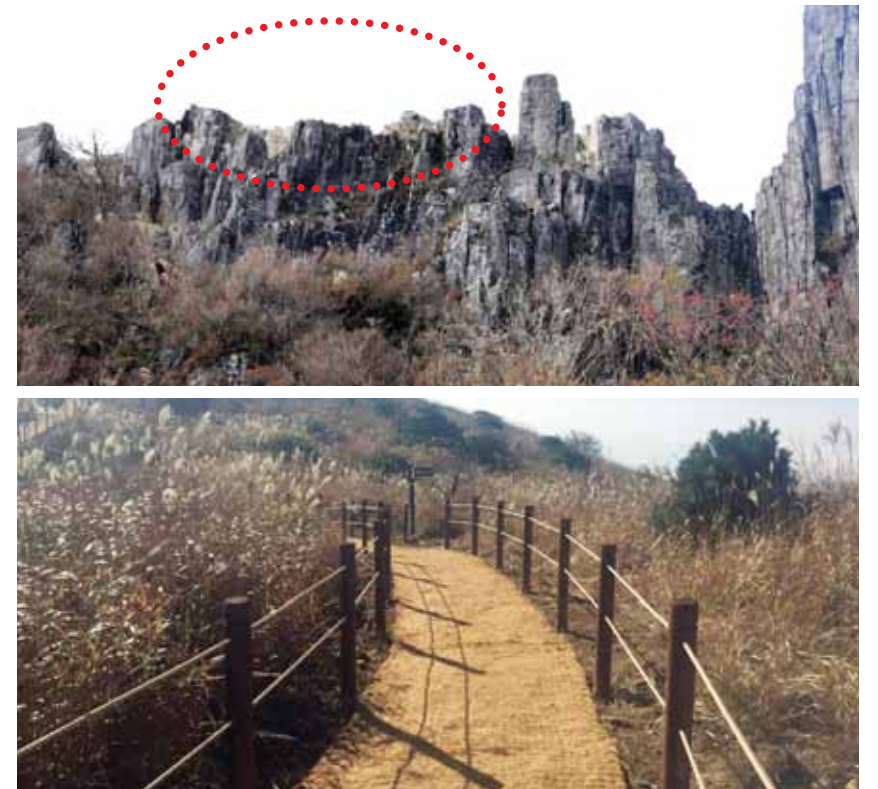
론 5일 본회의 개최에도 응하기 힘들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법원에 확정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고시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검토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교과서 집필거부, 대안교과서 제작 등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대국민 서명운동 역시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이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고, 전교조 등 진보성향의 교육계와 광주전남 시민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자 하늘로 솟으려 듯 날카로운 윤곽이 드러난 지왕봉 주상절리(위·점선)와 역새군락의 훼손 예방을 위해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역새 명소' 장불재(아래).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무등산 지왕봉 주상절리 50년만에 옛모습 찾았다

콘크리트 더미 걷어내... 장불재 일원 역새밭도 정비

7일 정상 개방행사

무등산 지왕봉(해발 1180m)이 50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았다. 지왕봉 주상절리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콘크리트 더미도, 지왕봉 가는 길에 설치됐던 콘크리트 계단도 모두 철거됐다. 가을이면 바람에 날리는 역새로 장관을 이루던 무등산 장불재 일원도 탐방객 편의와 역새밭 훼손을 막기 위한 정비작업이 마무리됐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3일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군부대가 훼손한 주상절리대 등 지왕봉 경관복원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고, 장불재 역새군락 보호를 위한 사업도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다져놓은 지왕봉 꼭대기도 말끔히 정리됐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40여일간 오직 망치와 정, 지게 등 수작업을 이용해 치워낸 콘크리트의 양만 줄잡아 300t. 콘크리트가 사라진 지왕봉의 모습은 하늘을 향해 치솟으려 하는 듯 예전보다 훨씬 뾰족해졌고, 콘크리트 계단이 사라진 곳은 일반인이 오르기 버거울 정도로 울퉁불퉁한 자연양상이 위용을 드러냈다.

장불재 일원 역새군락 보호사업도 마무리됐다.

무등산동부사무소는 장불재 휴게소부터 백마능선 구간(200여m) 탐방로에 목재 데크를 깔고 그 위에 친환경 소재의 식생매트를 입혔다. 탐방로를 벗어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로프 난간도 이 구간에 설치됐다. 비만 오면 질퍽거렸던 불편을 덜고 또렷하게 탐방로를 안내하면서 역새군락지 훼손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무등산동부사무소는 기대했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광주시는 이번 주말(7일)을 들어 세 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역사 쿠데타 멈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주의광주행동(준)'은 3일 광주 동구 YMCA 무인관에서 정부의 국정 교과서 확정·고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 백지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대안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허성관 원장 사퇴 촉구·김수삼 이사장 해임안 제출

광주시의회, 이사회 소집 요구

광주시의회는 3일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자진사퇴 촉구 및 김수삼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출한 해임건의안에서 "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최근 허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세금 미납 및 탈세·주민등록법 위반·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측면에서 원장 임용에 부적격하다

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임명 반대 사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시·도의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장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고 자질과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허 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허 원장은 원장직에서 자진사퇴하는 한편 이사회는 허 원장 임명을 강행한 김 이사장이 해임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원장을 해임하려면 재직 이사(18명) 과반이 회의 목적을 제시한 뒤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사장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해 출석 이사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해임 사유는 ▲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거나 ▲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 등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교통문화현수원 '자릿세 장사' ▶6면

디자이너들 '광주 산업' 디자인 ▶14면

시간 속을 걷다-110년 기동병원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통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이마트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